

최초로 바닷길 통해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기록 《가해조천록》

하버드대 연칭도서관의 고서들 — 11

허경진 | 연세대 국문과 교수

조선시대에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사신을 보내 천자에게 조회했다. 관리가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오면 기록을 남겼다. 사신이나 수행원이 개인적으로 남긴 기록도 있고, 공식적으로는 서장관이 기록했다가 돌아온 뒤 승문원에 제출했다. 광해군 때 뱃길을 통해 북경에 사신으로 다녀온 안 경은 《가해조천록》을 남겼는데, 최초의 수로조천록으로 그 가치가 높다.

조선시대 외교정책은 사대교린(事大交隣)이었다. 우리보다 큰 중국은 섬기고, 이웃이었던 일본과는 사근다는 정책에 따라 사신을 보냈는데, 중국에는 정기적으로 보냈으며, 일본에는 일이 있을 때 보냈다. 중국에 사신 보내는 일을 명나라 시대에는 조천(朝天)이라고 했으니 천자에게 조회한다는 뜻이었고, 청나라 시대에는 연행(燕行)이라고 했으니 연경(燕京)에 간다는 뜻이었다.

사신으로 다녀오면 기록을 남겼다. 사신이나 수행원이 개인적으로 남긴 기록도 있고, 공식적으로는 서장관(書狀官)이 기록했다가 돌아온 뒤 승문원에 제출했다. 주로 산문을 썼지만, 개인적으로는 한시나 가사로 지은 경우도 많았다. 산문으로는 연암 박지원이 기록한 《열하일기(熱河日記)》가 대표적인 작품이고, 가사로는 홍순학이 지은 〈연행가(燕行歌)〉나 김인겸이 지은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가 유명하다.

중국의 경우에는 해마다 네 차례씩 사신을 보냈는데, 임무에 따라 동지사(冬至使)·정조사(正朝使)·성절사(聖節使)·천추사(千秋使)라고 했다. 그밖에도 조선의 왕이 즉위하거나 세상을 떠날 때, 왕비나 세자를 정할 때 사신을 보내 허락을 받았으며, 명나라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도 역시 사신을 보내 축하하거나 위로했다.

후금 때문에 길이 막혀 뱃길로 명나라에 가다

뱃길은 예로부터 위험했다. 그래서 사신들은 당연히 육로를 통해 중국에 갔다. 뱃길로 중국에 간 경우는 대개 북방에 있던 나라가 길을 막았기 때문인데, 고구려에게 길이 막힌 백제나 신라가 뱃길을 통해 중국에 오갔으며, 고려시대에도 거란이나 금나라 때문에 길이 막히자 뱃길을 통해 송나라에 오갔다.

여진족의 세력이 차츰 강성해지더니, 누르하치가 1616년에 후금을 세웠다. 1621년에는 요동을 쳐서 심양을 점령하고, 요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런 와중에도 조선은 여전히 명나라와 외교관계를 유지했는데, 1620년 이정귀가 명나라에 주문사로 가 있는 동안 명나라 황제 광종이 죽었다. 그래서 이정귀가 8월에 황제의 부고를 보내왔으며, 광해군은 박이서를 진위사(陳慰使)로, 유 간을 진향사(進香使)로, 정응두를 서장관으로 보냈다. 이들은 광종을 조문하는 사절단이 아니라, 지난해 세상을 떠난 신종을 조문하는 사절단이었다. 이들은 육로를 통해 명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 요동반도가 막혔다. 이들은 1621년에 뱃길로 돌아오다가 폭풍을 만나 모두 죽었다.

광종의 죽음을 알리는 명나라 사신은 4월 12일에 칙서를 가지고 들어왔다. 광해군은 21일에 권진기를 진위사로 임명하고, 명나라 사신을 따라 뱃길로 떠나게 했다. 그때까지 사신들이 명나라에 오가는 길은 정해져 있었으며, 곳곳에 숙소가 준비돼 있었다. 국방상의 이유 때문에 다른 길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요동반도가 후금의 군사들에 의해 막혔으므로 뱃길을 통해 가야 했는데, 명나라의 허락을 얻어낼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명나라 사신들이 책임지기로 하고, 비변사에서는 이번 기회에 뱃길을 개척하자고 건의했다. 진향사와 서장관도 여러 사람이 추천됐는데, 추천되는 사람마다 뇌물을 쓰거나 온갖 핑계를 대면서 사퇴했다. 지난해에 갔던 진위사와 진향사, 서장관 일행이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탔다가 모두 죽었기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착실하게 준비된 뱃길이 아니라 갑작스레 떠난 뱃길이기 때문에, 배도 튼튼하지 못하고 뱃길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 뱃사공들도 서툴렀다. 그래서 두 차례 계속 몰살당했던 것이다.

오랜만에 떠나는 행차였기 때문에, 일행이 많아졌다. 명나라에서 온 사신 일행과 조선의 진위사, 사은사 일행이 모두 함께 떠났다. 사간원 장령(정4품) 안경(安敬, 1564~1640)은 '변무사은양건사은'(辨誣賜銀兩件謝恩)의 서장관으로 임명됐는데, 그는 떠나기 전부터 돌아온 뒤까지의 뱃길을 기록으로 남겼다. 보통 때는 말을 탔는데 이번에는 배를 탔으므로, 제목을 《가해조천록(駕海朝天錄)》이라고 했다.

이들 일행은 5월 17일 평안도 안주에서 명나라 사신 유흥운을 만나 인사하고, 20일 청천강에서 배가 떠났다. 6월 20일 바다 건너 등주에

내렸으니, 꼭 한 달이 걸린 셈이다. 도중에 풍랑을 만나 오래 걸렸는데, 9척은 침몰됐다. 이런 사정은 사은사 최응허가 6월 25일 광해군에게 올린 장계에도 밝혀져 있다.

광해군 때 뱃길로 등주 거쳐 북경에 도착해

“중국 사신이 여순 항구에 도착하는데 밤중에 사나운 바람이 강하게 불어, 유천사(劉天使)가 탄 배와 신이 타고 있던 배, 진위사가 타고 있던 배, 두 중국 사신의 짐을 실은 배 등 모두 9척의 배가 침몰되었습니다. 유천사는 겨우 몸만 빠져 나왔고, 한인들이 가운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신도 겨우 헤엄쳐 나와 표문·주문·공문을 물 속에서 건져냈는데, 토산물의 태반은 물에 떠내려가 유실했습니다.”

이 사건은 안 경이 6월 4일에 쓴 일기에 처절하게 기록돼 있다.

“배에서 떨어진 자들과 떠다니는 시체가 서로 섞여, 바다에 가득했다. 뱃전을 부여잡고 울부짖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다투어 기어올랐다. 급박하고 절박한 와중에 간신히 8~9척의 방물을 옮겼다. 해가 저물며 어둑해지자, 이번에는 후금 오랑캐가 떼를 지어 포를 쏘고 화살을 쏘았다. 미처 멀리 달아나지도 못했는데 큰비가 또 내리고 천둥과 바람까지 바다를 뒤집어놓아,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속수무책으로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안 경은 아비규환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비교적 담담하게 기록했는데, 죽을 마당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는 저절로 눈물을 흘렸다.

“안 경이 기록한 《가해조천록》 초고는 232년 뒤인 1853년 9월에 10대손 안정환이 다시 옮겨 썼다. 현재 연청도서관에 안정환이 필사한 《가해조천록》 1권이 소장돼 있는데, 매장 20줄, 매줄 22자로 씌어진 93장본이다. 바닷길을 통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안 경의 《가해조천록》은 최초의 수로조천록으로 가치가 높다.”

“나는 홀로 배 위에 서서 멀리 고국을 바라보았다. 오늘이 바로 어머니님 생신이였다. 깊은 물이 가로막혀 있고 까마득한 바다가 또 가로막힌 채 여러 아우들이 한데 모여 있으리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말을 삼키며 배회하다가 동쪽을 향해 두번 절했다.”

순풍을 비는 제사를 지내고 다시 출항해, 열흘 뒤 등주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 조정의 허락도 받지 않고 뱃길로 입국한 탓에 관아에 끌려가 또 한차례 곤욕을 치렀다. 그런 뒤에야 육로를 따라 북경에 들어갔다. 당시 명나라는 망하기 직전이라 관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뇌물을 요구했다. 안 경 일행은 9

척의 배가 풍랑에 침몰되는 바람에 가져간 방물을 10분의 1만 건졌으므로, 온갖 수모를 당해야만 했다.

안 경 일행은 광종의 조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석성에서 또 한 차례 풍랑을 겪었다. 안 경은 여기서 고국을 바라보며 네번 절하고는 유언을 남겼다.

“우리가 임금의 명령을 받들었다가 복명하지 못하는 죄가 이미 크지만, 이제 천지 만고의 원혼이 되려하니 멀리 일월을 바라보며 영결하노라.”

좌우 사람들이 말을 잃고 통곡했는데, 안 경은 며칠 뒤 돛대에 머리를 부딪쳐 이마가 깨져 피를 흘리기까지 했다. 앞서 갔던 사신들이 풍랑을 만나 모두 죽거나 십여일 표류 끝에 겨우 살아났으므로, 이들은 모두 공포에 싸였다. 거의 죽다가 살아서 돌아오자, 안주 성내의 관원과 백성들이 마중나왔다. 그러나 일행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모두 기쁜 것만은 아니었다.

“옴의 백성 가운데 곡하는 아낙이 있었다. 그의 아들은 관노였는데 비파를 잘 탔다. 진향사 유 간이 데리고 떠났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우리들이 살아온 것을 보고 곡하는 것이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흐느끼며 돌아앉았다.”

후손들에게 문관 벼슬을 하지 말라고 유언하다

안 경은 살아서 돌아왔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안주에 사는 백성들은 앞으로 사신이 떠날 때마다 수행원으로 따라가야만 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언제 끌려갈지 몰라서 이 아낙의 통곡에 공감했던 것이다. 안 경은 이번 뱃길에서 죽음을 경험한 이유가 자신이 문관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자손들은 영원히 문관 벼슬을 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

안 경이 기록한 《가해조천록》 초고는 세월이 오래 되면서 중이가 너덜너덜해졌으므로, 232년 뒤인 1853년 9월에 10대손 안정환이 다시 옮겨 썼다. 그가 남긴 발문에 따르면, 그의 후손들은 안 경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 벼슬하지 않다가 증손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무관 벼슬을 했다고 한다. 현재 연청도서관에 안정환이 필사한 《가해조천록》 한권이 소장돼 있는데, 매장 20줄, 매줄 22자로 씌어진 93장본이다. 바닷길을 통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안 경의 《가해조천록》은 최초의 수로조천록으로 가치가 높다. ■



안 경이 남긴 《가해조천록》에는 사신일행의 고단한 여정이 드러나 있다. 사진은 《가해조천록》의 첫머리쪽.